

John Alekna, *Seeking News, Making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Mass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4) 359 pp.*

유상운†

이 책은 1958년 중국의 대약진 운동 중 실시된 "참새와의 전쟁"으로 시작한다. 당시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깃발을 흔들고 냄비를 두드리며, 참새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날게 만들었다. 끊임없이 도망 다니던 참새들은 결국 탈진 상태로 땅으로 떨어졌고, 이러한 방법으로 중국은 많은 참새를 체계적으로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생태학적으로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책은 이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된 집단 행동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국 정부는 전체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전국적 규모의 동시적 집단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자는 이러한 전례 없는 대규모 동원 능력이 전국을 연결하는 라디오 확성기 네트워크와 관련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이 책이 탐구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919년 당시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던 중국 사회가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1950년대에 이르러 거의 동시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대중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저자는 라디오와 정보 기술의 역할을 중국 정치 변혁의 핵심 동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중국 근현대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

* 투고를 권유해 주신 이종식 부편집인에게 감사드립니다.

†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s.yoo@hanbat.ac.kr

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데올로기, 당 조직, 군사적 정복을 강조하는 기존의 설명과는 달리, 저자는 기술 변화가 어떻게 정보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전례 없는 규모의 대중 동원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책은 일부 도시 지식인들의 담론 변화에만 주목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선다. 저자는 문맹이 대부분이었던 광대한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이 어떻게 변모했는지에 주목한다. 그 결과로 1958년의 “참새와의 전쟁”과 같은 캠페인에 수억 명이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이 책은 기술정치(technopolitics)와 뉴스풍경(newsscape)이라는 두 가지 개념적 도구를 활용한다. 저자는 대중 정치와 대중 매체를 “하나의 기술정치적 과정의 두 가지 측면(two aspects of a single technopolitical process)”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7-8).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친숙한 기술정치 개념을 통해, 저자는 중국 역사를 대중 정치와 대중 매체가 서로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상호 구성의 과정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뉴스풍경은 저자가 창안한 개념으로, 정보가 물리적, 사회적 공간들을 어떻게 횡단하고 변형되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저자는 미디어 풍경(media landscape), 커뮤니케이션 생태계(communication ecosystem), 소리풍경(soundscape)과 같은 기존의 개념들이 특정 기관이나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뉴스풍경은 “지리적, 사회적 풍경 속에서 행동의 패턴과 구조들을 관통하는(encompasses the patterns and structures of behavior in a geographical and social landscape)” 더 포괄적인 접근법이라고 설명한다(9). 이러한 접근은 개별 미디어들을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여러 미디어 형식이 끊임없이 중첩되는 방식, 신문을 소리 내어 읽는 관행, 라디오 프로그램이 마을 벽에 게시되는 뉴스레터로 변환되는 과정 등을 포착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정치의 개념과 결합하여, 세계화된 조약항(條約港)에서 산간 오지 마을에 이르기까지, 농촌과 도시의 구분과 사회정치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연속적인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특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저자는 1919년부터 1968년까지의 기간 동안 통신 기술과 정치적 동원의 상호 구성 과정을 통해 중국 대중 사회의 출현을 추적하며, 이념적 변화나 군사적 파

열을 우선시하는 기존의 역사 서사를 일관되게 거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봉계군벌(奉系軍閥) 장쥔린(張作霖)과 그의 아들 장쉐량(張學良)이 1920년대 중국 최초의 공공 라디오 방송국을 만주에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이 방송국이 나중에 중국공산당 방송 체계의 기술적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2, 3장). 이들이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방송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으며, 라디오를 국제 관계 및 국내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또한 상하이에서의 최초 라디오 방송 시도(1922-23)와 레닌주의 모형에 따른 국민당과 공산당의 조직적 재구성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당시 쑨원(孫文)은 라디오 방송의 정치적 잠재력을 즉각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처럼 저자는 현대 중국에서 대중 매체와 대중 정치의 발전이 처음부터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정치적 연결성이 중국의 정치적 현대화 과정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라디오 기술의 확산은 1930년대 들어 중국 사회 전반에 “뉴스풍경 혁명(newsscape revolution)”을 가져왔다(87). 저자는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라디오가 어떻게 문맹이 대다수였던 중국인들에게 뉴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4장).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측면은 “라디오 모니터 요원(收音員)” 시스템이다. 이 모니터 요원들은 라디오 수신 내용을 필사해 지역 신문이나 마을 게시판에 게시했고, 마을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를 다른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문맹이 대다수인 농촌 지역의 정보 흐름을 변화시켰다. 중일전쟁 기간(1937-45) 동안에는 뉴스에 대한 갈망이 중국인들의 전시 경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5장). 저자가 특히 주목한 측면은 일본의 점령 정책이 중국의 뉴스풍경 발전에 미친 복합적 영향이다. 일본은 점령 지역에서 중국 최대 규모의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1945년 전쟁 종료 시점에 이르러 중국에 있던 라디오 수신기의 약 절반이 일본 제품이였다. 전쟁 이후에도 만주 지역의 다롄(大連)과 창춘(長春)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이 남아 중국공산당의 방송 시스템 개발에 기여했다. 이는 적국과의 기술적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중국공산당 선전 체계의 기술적 기반이 상당 부분 일본제국의 인프라와 노하우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산당은 자체적인 정보 전파 네트워크를 발전시켰다(6

장). 1937-49년 공산당 통제 지역(이른바 해방구)에서 구축된 라디오 네트워크는 국민당의 모니터 시스템과 유사했지만 나름의 특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옌안(延安) 라디오 방송국은 1941년부터 1946년까지 여성 아나운서만을 채용했는데, 이들의 목소리는 혁명의 상징이 되었다. 일본 항복 후 공산당은 장자커우(張家口)와 다렌 등 주요 도시의 방송 시설을 접수했고, 일부 일본인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방송망을 빠르게 확장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산당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화된 미디어” 환경을 전국적으로 구축했다(7장). 이는 개인 소유의 라디오 수신기보다 유선 방송망에 연결된 확성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 각 공동체, 공장, 학교에 설치된 확성기는 베이징과 지방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뉴스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저자는 이러한 방송 시스템이 단순히 하향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데 있다. 방송국은 이상적인 “모범 노동자”들의 경험담을 방송 콘텐츠로 활용했는데, 이러한 경험담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1957년 후베이성 다예(大冶)현의 방송국은 6개월 동안 367개의 혁명의 “공로자 이야기”를 방송했는데, 이는 전체 방송 내용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저자는 이러한 참여형 구조가 대약진운동 시기(1958-1962)에 어떻게 극단적인 생산 목표와 비현실적인 농업 관행에 대한 대중의 열정을 강화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대규모 기근의 비극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문화대혁명 시기(1966-76)에는 중국의 뉴스풍경이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8장). 저자는 이 시기를 “무질서의 기술정치학(the technopolitics of disorder)”으로 규정하며, 고도로 발달한 통신 인프라가 오히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밝힌다. 저자는 우한(武漢), 산시(陝西), 베이징 등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력 사태를 기록하며,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방송국 장악을 위한 투쟁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홍위병 파벌들은 유선 방송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부상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로부터 저자는 기술정치적 과정이 반드시 중앙집권화와 국가 권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특정한 조건에서는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사례로부터 저자는 정보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 뉴스풍경의 변화와 대중 사회의 출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강조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뉴스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하다. 그것을 음식이나 물에 비유하는 메타포는 언어와 문화, 시대를 넘나든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목마르다”(260). 이로부터 저자는 다시금 대중 사회의 형성이 단순히 국가나 정당에 의해 하향식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뉴스에 대한 “내적 갈망(*innate desire*)”이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재조직하도록 이끌고 스스로를 보다 광범위한 기술정치적 과정으로 통합했다”고 주장한다(262).

과학기술학 분야에 몸담은 평자로서 라디오라는 기술을 통해 국가 주도의 하향식 서술 구도에 도전하는 알렉나의 접근에 크게 동의하면서도, 상향식의 서술 과정에서 “내적 갈망”을 강조한 측면은 다소 놀랍다. 그의 연구는 군벌, 정당 지도자들의 라디오 기술 인식과 인프라 확충 과정을 기술정치적 과정으로 충실히 그려내는 데 크게 성공적이다. 다만, 일반 대중의 참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적 갈망”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는 단순히 기술정치 개념의 일관적 적용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책의 핵심적인 접근법이 하향식 정책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작동하는 반면, 상향식 과정에서는 추상적 요소에 기댔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국가·정당 중심 서술을 우회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고할만한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 학계에서 “기술정치(*technopolitics*)” 개념을 제안한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광채(*The Radiance of France*)』에서 가브리엘 헤트(*Gabrielle Hecht*)는 기술정치가 전통적 정치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술들의 물질적 실재(*material reality of the technologies*)”를 강조한 바 있다.¹ “기술정치적 과정”으로 대중 매체와 대중 사회의 공동 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책의 구도는 뉴스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 어떻게 기술의 더 구체적이고 복잡다단한 물질성과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낳는다.

이는 국가나 정당이 아닌 곳에서 라디오의 물질성과 얽히며 기술정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들이 국가 주도의 유선 방송망 기술정치와 어떻게 충돌 또는 결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알렉나는 책의 곳곳에서 아마추어 라디오 활동과 농촌 지역의 크리스털 수신기 제작, 부품의 밀수 및 기술자 훈련, 시골 지역에서의 방송 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다만 이들의 기술 실천이 과연 이후 국가 주도의 유선 방송망 기술정치와 얼마나 상

¹ Gabrielle Hecht, *The Radiance of France: Nuclear Power and National Identity after World War II* (Cambridge, MA: MIT Press, 1998), 15.

호작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긴장과 협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양잉촨(Yingchuan Yang)의 최근 연구가 강조하는 것처럼, 장비 수리와 송신 선명도 같은 일상적 기술적 도전이 어떻게 지역의 권력 관계와 정치적 실천을 재구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측면은 앞으로 더 풍부하게 탐색할 여지가 있다.² 이런 점에서 알렉나의 연구는 통신과 정치의 거시적 상호 구성에 대해 뼈대가 될만한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정치의 일상적 실천에 대한 향후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² Yingchuan Yang, "Connecting the Countryside: Radio Network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Masses in Socialist China," *Radical History Review* 2023:147 (2023), 111-136.